

퍼스 와 훔볼트의 기호관 비교

안정오(고려대)

0. 들어가는 말

우리가 전문용어 “기호”를 두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을 “기호”로 이해할 수 있고, 소쉬르가 설정한 어원적 기호를 “기호”로 이해할 수 있고¹⁾, 그림을 “기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기호에 대한 생각은 각기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지만 시대와 학자들마다 매우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대로 구별해서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기호를 제대로 구분하여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기호학에서 기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기호”와 언어철학적인 “기호”를 제시한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의 기호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퍼스와 훔볼트의 기호개념을 분석비교하기 전에 기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기호 개념을 먼저 살펴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기호 일반

기호란 어원적 의미에서 보면 이미 시각적인 것을 나타낸다. 독일어에서 “보여주다”를 의미하는 “zeigen”은 “Zeichen”(기호)의 어원이고, 라틴어 “signum”은 어떤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어 “sema”는 “보다”를 의

1) Ferdinand de Saussure의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일반 언어학논고』에 나오는 “singnifiant 시니피앙”과 “signifié 시니피에” 참조.

미한다. 물론 이런 의미는 더 이상 오늘날에도 배타적이지 않다. 자동차 클랙션 소리를 기호라고 부르고, 신호등에서 장님을 위해 고안된 소리신호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호로 본다. 낱말도 기호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기호는 전체현상으로서 생산되어 해석되는 것으로서 진술을 만들고 의의를 만든다. 고개 흔들기, 손짓하기 등과 같은 몸짓은 예를 들어 전체 행위로서 특정한 상황을 위한 의미를 가지는 기호이다. 벽에 화살표, 언어로 만들어진 진술, 낱말, 형태 등과 같은 개별부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것들도 기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호란 어떤 것을 보증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왔음을 나타내고, 하늘에 검은 구름이 있으면 금방 비가 올 것임을 나타내고, 가을에 잎이 노랗지면 곧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지 창백함이나, 검은 구름, 노란 잎 그대로 일 수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기호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 이것을 해석할 때만 나타내진 그 어떤 것은 기호가 된다. 만일에 검은 구름을 아무도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한 현상일 뿐 전혀 기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호화의 과정은 해석적-인지적 과정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호는 기호 생산자와 기호 수용자 사이에서 협동적 행위로서 일어난다. 캄라와 로렌첸은 이를 소통행위, 지시행위 혹은 단순히 기호라 부르고 있다.²⁾ 다시 말해서 기호과정은 해석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우리는 기호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별한 형식으로 나를 향해 짚어대는 개는 그 개가 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기호를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개가 길가에서 다른 개에게 으르렁거리고 그 다른 개가 움츠러 든다면 분명 이것은 이 동물적 의식 사이에 기호

2) Kamlah/Lorenzen 1967 : 67 이하.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가 다른 개에게 기호 “으르렁 거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호를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언어는 사람을 규정하는 기술이고 사람과 다른 동물을 기원적으로 구별해주는 것인 반면에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동물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기호의 기술(技術)이지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문어가 자신의 몸에서 검은 분비물을 내보내는 것이나 벌의 춤은 기호과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호와 동물의 기호는 매우 상이한데 동물의 기호과정은 상황에 종속적이고 본능과 연관되어져 있다. 인간의 언어만이 낱말을 문장으로 조합하고 특수한 방식으로서 문장을 전이(轉移)하고 사고를 분절된 음성연속체로 바꿀 수 있다. 동물 기호체계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인간 기호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바로 인간 기호의 언어종속적인 특징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언어 이외에도 비언어적 기호들을 만들어 내는데 교통신호등, 그림, 약호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록된 텍스트와는 다르게 어떤 것을 직접 모사하지 않고 언어적 정보 대신에 어떤 다른 의미에서 언어를 보증한다.

인간의 기호에는 모사적 기호와 비모사적 기호가 있는데 언어적 기호는 비모사적이고 그림은 모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낱말이란 임의성의 특징을 지니므로 비모사적 구조를 가진 기호만을 기호로 부르려 했다. 그래서 상징과 기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상징에서 질료적 기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내용을 모사한다. 우리는 기독교 십자가, 이슬람세계의 반달, 공산주의 낫과 망치를 상징이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녁식사의 술은 구세주 예수의 피의 상징이다. 그와 반대로 지시는 의미와 어떤 공통성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시는 임의적이다. 의미를 모사하지 않는 낱말은 기호이다. 사람들이 기호성을 기능적으로 -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해하게 하기 - 규정한다면, 모사성이나 비모사성의 기준은 기껏해야 기호적인 것의 내적 구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퍼스는 이러한 모사적 기호를 위해서 아이콘이란 용어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기호학에서 일반적인 표현이다.³⁾

이처럼 기호일반에서 “기호”는 여러 가지 다중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퍼스가 기호를 보다 자세히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호학에서 그의 용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의 기호를 다른 기호들과 구분할 때 보다 정확한 기호에 대한 개념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2. 퍼스의 기호관

퍼스는 일반적으로 철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히 인간의 인식을 기호 과정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기호를 제대로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었다. 퍼스는 1902년에 붙든 사전에서 기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어떤 것을 (그것의 해석체를) 어떤 대상에 관계되도록 하는 것이 기호다. 이런 방식으로 그 대상에 그것은 스스로 관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체는 그 나름대로 어떤 기호가 된다. 그렇게 계속 (그런 과정은) 무한히 계속된다.”⁴⁾

이 말에 따르면 퍼스의 기호는 1) 독립적으로 주어진 어떤 대상에 관계된다. 2) 어떤 해석체에 관계된다. 3) 해석체가 대상에 그러한 관계에 있도록 동기유발한다.⁵⁾

여기서 말하는 해석체와 기호간의 관계를 “대상적 해석가능성의 관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기호는 두 번째의 해석가능한 기호가 - 항상 첫 번째 기호를 근거로 형성되므로 - 첫 번째 기호에 종속적일 때만 그리고 더욱이 첫 번째 대상과 같은 기호외적 대상에 관계될 때만 다른 기호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퍼스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체의 개념이다. “해석체는 해석체 스스로가 서술하는 그와 동일한 것을 어떤 서술이 서술하고 있

3) Trabant 1998: 37-52 참조.

4) Peirce I 1986: 375.

5) Peirce I 1986: 14 참조.

음을 서술하는 것이다.”⁶⁾ 이는 이미 해석하는 의식이 어떤 표현된 모습을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더 나가서 기호는 정신을 위해 다른 사물을 보증하는 무엇이라 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호는 다음 세 가지 것이 요구된다:

1)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2)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에 의해 영향 받아야 하거나 적어도 기호에 있는 어떤 것이 대상의 변화와 같이 실질적인 원인제공의 결과로서 변해야 한다.

3) 기호는 정신에 지향되어져있다.⁷⁾ 기호는 독립된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지만 지시하는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사고나 정신에 항상 종속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피스는 기호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측면 중 특히 기호(표상체)와 피지시체(대상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도상 Icon, 지표 Index, 상징 Symbol.⁸⁾

1) 도상:

“도상이란 자신의 대상을 보증하는 기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지된 사물로서 대상을 환기시킬 관념과 자연적으로 연결된 어떤 관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⁹⁾

도상은 기호가 피지시체와 매우 유사한 것을 말한다. 즉 표시하는 대상

6) Peirce I 1986: 115.

7) Peirce I 1986: 188.

8) Peirce I 1986: 202 이하 참조. 표상체에서 실질적인 등장과 잠재성에 따라서 개별기호와 법칙기호가 구별되고 표상체를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질료적 성질에 따라서 품질기호가 나타난다. 또한 해석체와 지시상황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기호와 기호조합을 구별한다: 해석기호(개별기호), 발화기호(진리에 적합한 명제), 논항기호(텍스트, 소네트 형식, 삼단논법).

9) Peirce I 1986: 205.

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도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은 해당 사람의 모습에 매우 유사하므로 이는 도상이 된다. 의성어나 의태어는 소리와 그 낱말이 동일한 청각영상을 지니기 때문에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지도는 한국을 나타내는 지형적인 모양의 도상이다. 교회 탑 위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의 고통을 연상시키는 도상이다. 상형문자는 대표적인 도상인데 눈을 나타내는 “山”자는 산으로부터 그 모습을 본 딴 것이고 강을 나타내는 “川”자는 강물의 모습을 본 뜬 도상이다.

2) 지표:

“지표는 지표와의 실질적인 연결을 근거로 혹은 이러한 대상을 다루도록 정신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 지표의 대상을 보증한다.”¹⁰⁾

지표는 대상과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표와 대상체 간의 인과적 관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덥지근한 공기는 비의 지표이고 풍향계는 바람방향의 지표이고 북극성은 북쪽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연기는 불의 지표이고 손가락의 다이아몬드는 부의 지표이며 무명지에 끼워 있는 반지는 결혼의 지표이고 콧물이나 재채기는 감기의 지표이고 아이큐는 지능의 지표가 된다. 대명사, 일반명사, 시제 등도 역시 사람, 사물,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3)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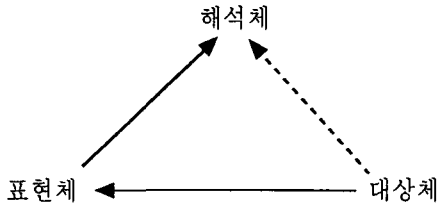
“상징은 특정한 방식으로 상징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양의 지표에 의해 표시되는 수많은 대상이 그것과 연관된 도상을 통해서 서술되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본래적인 기호이다.”¹¹⁾

10) Peirce I 1986: 206.

11) Peirce I 1986: 211.

여기서 퍼스가 말하는 상징은 언어, 학교마크, 아라비아숫자 8, 모든 낱말 등이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상징이다라고 말한다. 퍼스는 원래 기호 중 가장 뛰어난 것이 상징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징물의 상징과 퍼스의 상징은 구별되어야 한다. 칼 구스타프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 꿈을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림이나 영상과 유사하게 이해하는 상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의성과 규약이 상징의 일반적인 성질이므로 이 상징으로 일어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들, 즉 지식, 관념, 이데올로기는 외관상 진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임의적인 조작을 통한 동의에 불과하다. 즉 진리란 여론에 불과하고 진리는 처음부터 없었고 진리는 근본적으로 기호 조작에 의해 태어난 허구이다. 그러나 상징이 이처럼 자의적이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호를 퍼스는 단순히 분류하지 않고 기호의 조건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어떤 것이 기호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삼원성을 가져야 한다¹²⁾:



그에 의하면 해석 가능한 모든 것은 다 기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호적인 것이란 세상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다. 즉 세상에 있는 사물과 결과를 어떤 다른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세상을 강화하는 시각이다. 그래서 퍼스는 기호를 아주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기호학은 그런 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기호학은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하는 태도의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인식이론이다.

12) Trabant 1996: 31 참조.

퍼스의 기호관은 해석하는 자, 즉 인식하는 주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기호관이다. 만일 우리가 기호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전달하기”라는 요인을 진지하게 수용한다면 기호과정을 의사소통적 과정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즉 해석하는 의식은 전달하는 의식과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퍼스의 기호관에서 기호의 이해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2.1. 퍼스의 기호이해하기

이러한 수많은 기호들을 우리는 사회의 어디에서나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디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알았을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빨간 불은 정지를, 꽃다발은 축하를 의미하는데 이런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면서 이러한 이해하기를 훈련받았다. 이런 이해는 자동적인 재인식만이 아니고 기호이해하기에게 추리적인 동작이 토대가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이는 해석하는 의식이 추론하는 것인데 이것을 퍼스는 가추라고 부른다.¹³⁾ 검은 구름은 지나간 경험을 토대로 일반적 비의 강수로서 해석된다. 물론 그 안에는 잘못된 추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검은 구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결과로서 비를 전혀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추론은 완전히 임의적이지도 않다. 가추는 기호 자체의 구조에 의해 통제된다. 즉 지나간 기호경험과 해석결과에 의해 통제된다. 퍼스의 전통에서 비록 모든 기호가 아직은 매우 자동적인 재인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기호 이해하기는 가추적 능력으로 간주된다.¹⁴⁾ 가추는 결론에서 주장된 사실에 대한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도 잘 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의 형태로 제시한다.

매우 간단하게 보이는 인간의 기호 해석하기와 이해하기는 기호의 구체적 사용과 해석에 토대가 되는 지나간 기호학적 경험에서 유래하는데 언어

13) Peirce I 1986: 393 이하 참조.

14) Peirce I 1986: 393 이하.

학과 기호학에서 일반적인 잠재적 행위나 행위 모형의 측면과 행위 및 행위의 실질적 등장의 측면 사이의 구별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퍼스는 type 과 token 사이를 구별하는데 언어학에서 랑그와 파롤의 구별이 이에 속한다.¹⁵⁾

퍼스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범주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래서 퍼스는 첫째로 기호를 보는 시각을 제작과정보다는 해석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해석체라는 개념이다. 해석체는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석하는 집단에 존재하는 어떤 의식을 말하는데 이는 해석과정에서 꼭 수반되는 용감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3. 흄볼트의 기호관

흄볼트는 기호에 관하여 말할 때, 퍼스의 광의의 기호와 다르게 언어에 한정된 기호만을 주로 기호라고 하는데 문자에 대한 기호인 “문자기호”(Schriftzeichen), 음성에 대한 기호인 “음성기호”(Lautzeichen), 좀더 큰 의미에서의 “언어기호”(Sprachzeichen), 그리고 “문법적인 기호”(grammatische Zeichen), 청각적인 현상으로서 “청취 가능한 기호”(hörbare Zeichen), 그리고 시간과 관련이 있는 “시간적인 기호”(zeitliche Zeichen) 등을 기호라고 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시각적인 기호로서의 “공간적인 기호”(räumliche Zeichen)도 기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그림 같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¹⁷⁾

가장 일반적인 기호에 대한 언급은 흄볼트 자신의 논문 「사고와 말하기에 대하여」(1795/96년)에 나온다:

“언어를 찾는 인간은 기호를 찾는다. 이 기호 속에서 인간은 사고하면서 만들어 내는 단편들로부터 전체를 통합체로 모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기호

15) 이에 대해서는 Trabant 1996: 32 참조. 랑그와 파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려면 소슈르 『일반언어학강의』 1916년 참조.

16) Trabant 1996: 33 이하 참조.

17) 안정오 1999: 167 참조.

는 시간 속에서 파악되는 현상들이 공간 속에서 파악되는 현상들보다 더 어울린다.”¹⁸⁾

홉볼트는 인간을 기호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기호를 통하여 사고하고 기호를 통하여 세상의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호를 그가 사고와 인식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는 기호를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언어기호는 시간적인 기호를 말한다.

그에 의하면 “언어기호는 필연적으로 음성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능력 사이에 있는 신비로운 우주에 따라서 인간은 대상을 그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한은 직접 그 대상을 나타내는 음을 말해야 할 것이다.”¹⁹⁾

홉볼트의 기호는 우주작업을 통해서 음으로 고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기호는 일반적인 상징과 유사한 기호이다:

“동일한 유추가 계속 되었다. 인간이 언어기호를 찾았을 때 인간의 이성 은 그것들을 구별해야 했다. 더 나가서 인간은 실질적인 사물이 아니라 개념, 즉 자유로운 취급을 허용하는 전체를 형성했다. 이것에 맞게 혀는 역시 새로운 조합을 허용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분절된 음성을 선택했다.”²⁰⁾

이성을 토대로 유추는 한번 더 언어작업을 하면서 분절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기호와 대상은 상당히 비모사적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음성은 다른 자연에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 이외에 어떤 것도 자신의 동료와 동일한 생각을 통해 이해하도록 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동일한 느낌을 통해 행동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18) 홉볼트의 『Gesammelte Schriften』 (『논문총서』)은 이제부터 GS로 표시하겠다.

GS VII: 582.

19) GS VII 582.

20) GS VII 582-583.

21) GS VII 583.

인간만이 기호를 통해 이해하고 기호를 통해 세상의 것을 추상화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다. “인간은 그래서 그것이 그 자체로 원시적인 어떤 유일한 자연적 음도 자신의 언어에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그와 유사하게 조음된 음만을 만들어 낸다.”²²⁾

인간은 세상에 있는 음과 다른 양식으로 음을 분절시켜서 인간적 음을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는 인간에게 변용된 음이고 이것이 세상을 구별하는 기호가 된다:

“인간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통각적인 비명을 언어로부터 매우 잘 구별하고, 그 통각은 역시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을 매우 정확하게 이 속으로 인도한다. 그가 만일 적어도 표상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대상을 분리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었다면 그는 자연음을 그대로 발설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만 인간은 말한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의 척도에 의해서만 음을 승격시킨다.”²³⁾

흄볼트는 기호를 더 자세히 규정하는데 들을 수 있는 기호는 시라고 했으며 볼 수 있는 기호는 몸의 동작이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의 저서에서 기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인 낱말의 차원을 넘어서 좀더 거대한 생각과 관련이 되고 있으며 언어라는 체계로 동일시된다.

흄볼트에서는 기호와 낱말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기호학자들 기호 안에서 낱말을 이해하지만 흄볼트는 낱말과 기호를 확연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흄볼트에 있어서 낱말은 조음된 음성으로 되어 있고 사고를 생산하는 일종의 관념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언어구성의 상이성과 그것이 인류정신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낱말에서 개별 개념의 기호를 이해한다. 음절은 음성의 단위를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의미를 가질 때만 낱말이 된다. [...] 그래서

22) GS VII 583.

23) GS VII 583.

언제나 낱말에는 이중의 단위가 있게 되는데 개념과 음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서 낱말은 언어의 진정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음절의 낱말은 원래 낱말이라고 명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이는 역시 낱말을 하나의 개별적인 것으로 고찰하고 있음으로 전체적인 언어와는 다른 이해이다.

1820년에 쓰여진 「언어발달의 상이한 시대와 관련된 비교언어연구에 대하여」에서 그는 언어와 기호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언어는 서술되어야 할 것의 모사도 아니고 그 자체를 위한 기호도 아니다. 언어는 이 둘 다 동시적이어야 한다. 모사로서 언어는 사용의 임의성에 게 어떤 여유도 남겨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호로서 언어는 그 자체에 이러한 임의성을 지닌다.”²⁵⁾

이 인용에 따르면 언어란 모사성과 임의성을 둘 다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기호는 단지 임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훔볼트는 기호를 언어 속에 있는 작은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가 이해한 기호의 종류는 시간기호, 시각기호, 청각기호가 있고 기호는 임의성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이왕에 만들어지면 그 대상과는 무관하다.²⁶⁾ 이는 『크라틸로스』에 나오는 헤르모게네스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의 언어사상에서 기호는 낱말과 명백히 구분된다. 왜냐하면 낱말은 음성을 통해서 개념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훔볼트에서 낱말은 일반적인 기호가 아니라 특수한 종류의 기호이다. 낱말이 음성과 결합되는 과정은 조음의 과정을 거치고 개념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기호이다. 그러나 내용을 같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는 개념과 결합되므로 일반기호와 다른다. 왜냐하면 훔볼트에 있어서 개념과의 결합은 유

24) GS VII 72.

25) GS IV 28.

26) 이러한 그의 기호관은 『크라틸로스』에 나오는 헤르모게네스의 주장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표상이론에 접근하는 주장이다.

연(有緣)한 과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낱말 안에는 음성의 단위와 개념의 단위가 공존하고 낱말은 그래서 개념을 나타내게 된다.²⁷⁾

낱말과 대상이 결합하는 것을 흄볼트는 형식이라는 전문용어로 이해한다. 즉 『카비어 서론』에서 언어와 낱말의 음성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형식(Form)으로 소개하는데, “사실 언어의 형식이란 오히려 어떤 민족이 그들 언어에서 사고와 감정의 타당성을 찾게 해주는 아주 개별적인 충동이다.”²⁸⁾ 각 나라마다 언어의 형식은 다르고 그 다른 형식이 내용과 음성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음성이 언어의 외적인 형식이고 내용이 내적인 형식인데 이 내적인 형식과 외적인 형식은 형성하는 원리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음성이라는 재료는 조음으로 만들어지고, 의미영역에서는 나라마다 독자적인 정신 활동으로 개념이 형성된다. 외적인 형식이 재료인 음성과 합해지고, 내적인 형식이 개념과 합해져서 낱말을 만들어 낸다. 흄볼트는 이를 다르게 표현하여 통합이라고 이해한다. 이 통합은 흄볼트에 있어서 조음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을 조음과 형식의 상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위개념인 통합이 형식으로 파악된다면 이것은 어휘를 만드는 구성요소가 된다.²⁹⁾

“통합”, “조음” 그리고 “형식”은 개별적인 낱말과 언어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에 응용되기 때문에 어휘에서 처리된 형식은 언어의 문법적이고 문장적 구조에서도 형성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

흄볼트는 사고와 음성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자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언어의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의 연결은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다.³⁰⁾ 소쉬르는 자신의 기호관에서 기호와 대상간의 관계는 무조건 임의적인 것으로 보지만 흄볼트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27) GS V 410 참조.

28) GS VII 47 이하.

29) 안정오 1999: 170 참조.

30) 이는 예를 들어 이러한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들의 즐겨 제시하는데, “wehen”, “Wind”, “wirren” 등은 “w”라는 음이 “돌다” “휘다”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홉볼트는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므로 기호를 임의성으로만 고찰하는 일방적인 이해는 언어연구를 잘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³¹⁾

하지만 낱말을 기호로 볼 때 그 낱말은 사물과 내부의 나와의 중간자로 볼 수 있다:

“낱말은 분명 그것이 어떤 사물과 개념을 위해서 사용되는 한에는 기호이다. 그러나 그것의 형성과 작용의 방식에 따라서 기호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본질이고 일종의 개별자이다. 모든 낱말의 총합인 언어는 우리 외부에 나타나는 것과 우리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 사이의 중간에 놓여있는 세계이다.”³²⁾

낱말이란 기호라고 생각되지만 지시하는 개념과 특정한 관련을 가지므로 대상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기호와는 다르다. 낱말은 영혼에 의한 대상으로부터 생산된 영상의 모사이기 때문에 언어란 명칭목록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지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 언어들이 상이한데 이는 음성만이 상이한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즉 음성이 서로 다른 동의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어의 “Fleisch”는 사람의 “살”과 동물의 “고기”를 뜻하고, “Glück”은 “행운”, “축복”, “복” 등을 의미한다.³³⁾ 사물과 개념에 사용되는 낱말은 분명히 기호이지만 형성하는 방식을 고찰해 보면 낱말과 언어는 기호 이상의 것이다. 홉볼트에 의하면 지시객체는 한편으로는 사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이다. 즉 감성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은 지시객체이고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은 개념이다. 그래서 기호 이상의 어떤 특징이 낱말과 낱말의 지

31) GS III: 167 참조.

32) GS III: 167.

33) 이러한 여러 가지 증명들은 “낱말밭”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언어들을 어휘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확실하다. 그래서 레오 바이스게르버는 시대별로 다른 세계상을 비교하여 보인 바 있고 안정오는 온도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독일어의 세계상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한 바 있다. An, Cheung-O 1994, Weisgerber 1964 참조.

시 사이에는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흠볼트의 언어기호를 “기호 이상” 혹은 “초기호적”이라고 한다.³⁴⁾

흠볼트는 기호를 낱말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텍스트도 기호로 본다. 그래서 낱말들은 상호적으로 연관이 있으며³⁵⁾ 낱말이란 연결을 통해서만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지닌다고 말한다.³⁶⁾

더 나가서 흠볼트는 언어를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임의적 기호로 보지 않고 관념의 형성을 하는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언어의 상이성(相異性)은 “기호와 음성의 상이성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상이성이다”³⁷⁾라고 주장한다.³⁸⁾

4. 퍼스 와 흠볼트의 기호관 비교

퍼스 와 흠볼트는 기호나 언어를 사회적인 산물로 보는 데는 일치한다. 그러나 흠볼트는 사고와 언어를 한 단위로 생각하지만 퍼스는 해석체라는 개념을 통하여 언어를 분리해 낸다. 그래서 의미의 포괄적인 이론을 발전시키고 기호학적 인식이론으로 연결짓는다. 지시관계와 의미관계가 기호개념으로 수렴된 후에 기호학적 관계는 더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퍼스에서 기호는 사고의 조건으로서 인식이론으로 수렴된다. 사고하는 것은 기호를 주는 것이고 기호를 주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호는 다 퍼스의 기호관에서는 연구대상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호관이다. 그리고 해석체라는 개념을 기호의 삼원소 중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기호에서 제작과정보다는 해석과 이해과정에 중점을 둔다.

흠볼트는 퍼스와는 약간 다르게 좁은 의미에서의 기호를 생각한다. 그래

34) Schmitter 1987 Das sprachliche Zeichen 참조.

35) GS VII: 108 참조.

36) GS VII: 173 참조.

37) GS IV: 27.

38)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독일에서 레오 바이스게르버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벤자민 워프에 의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증명된다. Weisgerber 1963, Whorf 1956 참조.

서 구체적인 언어기호를 기호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호란 유추작업을 통해 음이 고정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낱말과 이 개념을 대비시켜서 낱말은 모사적인데 반하여 기호는 비모사적이다.

퍼스의 기호는 대상체와 기호간에 관계가 전혀 무관하여 기호를 이해할 때 해석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퍼스의 기호는 해석의 과정이 생산과정보다 더 고찰된다. 그러나 흄볼트의 기호는 낱말과 기호를 비교하면서 낱말이 제작과정에서 대상체와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에 기호는 대상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함으로써 기호제작과정을 더 깊이 있게 고찰했다.

비록 이들의 견해에는 공통점보다는 상이점이 더 많지만 서로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기호를 규정해 보려는 시도는 현대 기호학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퍼스는 논리학을 통한 기호의 체계적인 분류에서 기여한 바가 크며, 흄볼트는 언어철학적인 견지에서 기호를 낱말과 대비시켜 분류한 것이 그의 커다란 업적이다.

5. 나오는 말

기호학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기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³⁹⁾ 기호나 기호의 범주가 시대마다 다르고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호학은 갈피를 못 잡고 어떤 때는 먼저 연구하고 이것은 기호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사후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출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행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기호의 한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체계를 잡는 것이 정확한 기호학의 연구범주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논문은 기호학에서 중심적인 기호범주를 제시한 퍼스의 기호관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대비하여 흄볼트의 기호관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호라는 현상이 어느 하나의 학문분과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39) Trabant 1986

아님을 알게 되었다. 퍼스의 논리학에서 기호는 인간인식의 수단이었으며 흄볼트는 사고와 언어의 관계성에서 개념, 낱말 그리고 기호를 대비시켜 가면서 기호를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기호는 사고에서 필수적이고 낱말과 함께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퍼스는 체계적인 기호를 제시하였지만 보다 광범위한 기호였고, 흄볼트는 낱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 기호이기에 그렇게 명확한 기호의 경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보다 협소한 기호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퍼스와 흄볼트의 기호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일반적으로 애매하게 생각했던 기호의 한계가 정해졌다.
- 2) 퍼스의 기호관을 명백히 관찰할 수 있었다. 즉 퍼스의 기호에서는 해석체의 개념이 중요했다.
- 3) 흄볼트의 기호관은 현대적인 기호개념과는 달리 사고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⁴⁰⁾

이러한 세 가지 사항 이외에도 다른 기호학자들과 관련성을 보다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기호의 시대적 변화상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호학의 연구분야를 보다 명백히 확정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0) 이 기호개념과 유사하게 다른 개념들도 흄볼트 당시와 현재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데 “Nation”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이 낱말은 현재에 Staa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흄볼트 당시에는 Staat도 함께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 고 문 헌

- An, Cheung-O 1993: Grammatik aus der Fremd- und Eigenperspektive, Peter Lang. New York/Paris.
- Humboldt, Wilhelm von 1876-80: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ß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Hrsg. August Friedrich Pott). 2 Bde. Berlin: Calvary.
- Humboldt, Wilhelm von 1883/84: Die sprachphilosophischen Werke Wilhelm's von Humboldt (Hrsg. Heymann Steinthal). Berlin: Dümmler.
- Humboldt, Wilhelm von 1903-36: Gesammelte Schriften. 17 Bde. (Hrsg. Albert Leitzmann u.a.). Berlin: Behr.
- Humboldt, Wilhelm von 1960-81: Werke in fünf Bänden (Hrsg. Andreas Flitner und Klaus Giel). Darmstadt: Wiss. Buchgesellschaft.
- Kamlah/Lorenzen 1967: Logische Propädeutik. Vorschule des vernünftigen Redens. Mannheim/Wien/Zürich.
- Menze, Clemens 1965: Wilhelm von Humboldts Lehre und Bild vom Menschen. Ratingen: Henn.
- Saussure, F. de 1967(1916):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Berlin.
- Pape, Helmut 1986: Semiotik als philosophische Disziplin. In: Charles Sanders Peirce Semiotische Schriften I, C. Kloesel & H. Pape(Hg.), Frankfurt a. M: Suhrkamp. S.9-26.
- Peirce, C.S 1898-1902: Grundbegriffe der Semiotik und formalen Logik. In: Charles Sanders Peirce Semiotische Schriften I, C. Kloesel & H. Pape(Hg.), Frankfurt a. M: Suhrkamp.
- Peirce, C.S 1896: Neunte Lowell Vorlesung. In: Charles Sanders Peirce Semiotische Schriften I, C. Kloesel & H. Pape(Hg.), Frankfurt a. M: Suhrkamp. S.107-127.

- Peirce, C.S 1873: Logik als die Untersuchung der Zeichen. In: Charles Sanders Peirce Semiotische Schriften I, C. Kloesel & H. Pape(Hg.), Frankfurt a. M: Suhrkamp. S.188-190.
- Peirce, C.S 1895: Kurze Logik. In: Charles Sanders Peirce Semiotische Schriften I, C. Kloesel & H. Pape(Hg.), Frankfurt a. M: Suhrkamp. S.202-229.
- Peirce, C.S 1960: Collected Papers I-VI, Havard Uni. Press: Cambridge.
- Peirce, C.S 1986: Charles Sanders Peirce Semiotische Schriften I-III, C. Kloesel & H. Pape(H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Platon 1957: Kratylus. Rowohlt: Klassiker.
- Saussure, F. De 1967: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Gruyter: Berlin.
- Schmitter, Peter 1987: Das sprachliche Zeichen. Nodus: Münster.
- Trabant, Jürgen 1990: Traditionen Humboldts. Frankfurt a. M.: Suhrkamp.
- Trabant, Jürgen 1996: Elemente der Semiotik. Franke: Tübingen und Basel.
- Trabant, Jürgen 1998: Artikulationen. Frankfurt a. M.: Suhrkamp.
- Weisgerber, Leo 1963: Grundzüge der inhalbezogenen Grammatik. Schwann: Düsseldorf.
- Weisgerber, Leo 1964: Zur Grundlegung der ganzheitlichen Sprachauffassung, Schwann: Düsseldorf.
- Whorf, Benjamin Lee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ass.: M.I.T.Press.
- 안정오 1995: 훔볼트의 언어생성연구. 독일문학 56.
- 안정오/김남기(공역) 1998: 훔볼트의 상상력과 언어. 인간사랑.
- 안정오 1999: 빌헬름 폰 훔볼트의 기호관. 인문대 논집 18집.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Zusammenfassung

Vergleich des Zeichens von C. S. Peirce mit
dem von W. v. Humboldt

An, Cheung-O(Korea Uni.)

In der Semiotik ist es sehr wichtig, den Rahmenbereich des Zeichens festzustellen, weil der Bereich des Zeichens je nach Wissenschaftler unterschiedlich ist. Dementsprechend muss jedes Forschungsergebnis in der Semiotik hinterfragt werden, um sichergehen zu können, ob es zur Semiotik gehört oder nicht.

Daher besteht zunächst die Notwendigkeit, zu bestimmen, was ein Zeichen ist. In diesem Zusammenhang versuchten wir in diesem Aufsatz, damit wir den Begriff "Zeichen" besser erfassen können, das Zeichen von C. S. Peirce mit dem von W. v. Humboldt zu vergleichen.

Zu Beginn dieses Aufsatzes stellten wir dar, was ein Zeichen ist. Dieser Vorgang ist notwendig, damit mit Hilfe des allgemeinen Begriffes des Zeichens ein Vergleich zwischen Peirce und Humboldt angestellt werden kann. Danach stellten wir die Zeichentheorie von Peirce vor.

Nach Peirce ist die Sprache eine Untergattung von drei Zeichensorten, die Ikon, Index und Symbol genannt werden. Nach ihm gehört das Symbol zur Sprache. Für ihn ist der Interpretant im Zeichenbegriff am wichtigsten, weil ein Zeichen immer eines Interpretantes bedarf, der das Zeichen interpretiert. Aber der Interpretant ist kein Individuum, sondern ein interpretierendes Bewußtsein, also eine traditionelle Gesellschaft, die ein Muster zum Interpretieren bietet.

Anschließend beschäftigten wir uns mit der Theorie von Humboldt. Er benutzt verschiedene Zeichenbegriffe wie z.B. Schriftzeichen, Lautzeichen, Sprachzeichen, grammatische Zeichen, hörbare Zeichen, zeitliche Zeichen

und räumliche Zeichen. Bei ihm is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Wort und Zeichen besonders wichtig, weil das Wort nicht zum Zeichen gehört, wie wir es normalerweise annehmen. Er behauptet, dass das Wort beim Produzieren motiviert ist. Daher ist nach ihm das Wort transsemiotisch. Darüber hinaus muss das Zeichen und das Wort im Zusammenhang zwischen Sprache und Denken betrachtet werden. Wenn man das Wort als Zeichen betrachtet, ist das Wort ein Zwischending zwischen dem Sprechenden und dem Ding.

Damit können wir schlussfolgern;

- 1) Bei Humboldt ist das Zeichen ein Mittel zum Denken, das sich vom transsemiotischen Wort unterscheidet.
- 2) Nach Peirce besteht ein Zeichen aus Ikon, Index und Symbol. Im Zeichen, das aus Repräsentamen, Interpretant und Objekt besteht, ist der Interpretant am wichtigsten, denn ein Zeichen, das keinen Interpretant hat, ist kein Zeichen mehr, das interpretierbar ist.